

<2004 한국여성재단 파트너 기관 사업보고서 “발간사”>

디지털 시대라는 사회적 현상만큼이나 여성 공익발전의 질적인 도약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 40여명의 여성 국회의원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뤄냈는가 하면, 그 이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고 급기야 반세기동안 요원하게만 보였던 제도적 차별의 마지막 상징, 호주제까지 폐지됐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그동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분야까지 여성들의 두드러진 활약상이 곳곳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가 여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점차 입증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러한 여성의 비약적 발전이 시대적 조류에 따라 자연스럽게, 또는 단 한 순간에 몇몇 개인들의 의지에 의해 불현듯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줄 압니다. 이 뒤에는 늘 정부와 균형된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십년간 빈곤과 폭력, 불평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온 민간 여성단체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어왔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민간 여성공익재단으로서, 재정적으로 열악한 여성단체 및 기관들이 정부로부터 독립된 순수성을 지키면서 때로는 정부 정책의 감시자로서, 때로는 동등한 조력자로서 견제의 역할과 국가 정책 사각지대의 보완의 역할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민간 재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재단은 그동안 여성공익활동에 뜻을 함께 하는 22만여명의 일반 시민들을 만나왔고, 이 소중한 기부자들이 마음과 마음을 모아 조성해준 기금이 바로 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인 한국여성기금입니다.

올해 세 번째로 발간되는 한국여성재단 나눔의 열매 <2004 한국여성재단 파트너기관 사업보고서>는 2004년 한 해 동안 한국여성기금의 열매 약 4억여 원으로 지원된 38개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들의 헌신적인 여성공익활동의 활약상을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민간 재원이 공공재원과

는 차별적으로 다양한 여성공익 영역을 개척하면서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훌륭한 민간 여성공익활동의 성과들을 생생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가 민간 여성공익활동을 위한 집적된 자료로 많은 여성관련 기관들이 다양하게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도적인 여성공익 발전은 이미 많은 부분 성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적 변화와 사회의식 사이의 차이를 채울 수 있는 좀더 광범위한 여성공익활동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사회조성과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상의 정치로, 또 깊숙이 스며든 일상적 문화의 행태로 드러내는 그 날까지 더 많은 과제들을 발굴하고 더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4년 여성공익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애쓰신 한국여성재단 파트너 기관들의 모든 관계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재단과 함께 해온 모든 분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박영숙